

저 자 씨

◆제1621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6년 3월 15일(가해) 사순 제4주일



▶세바스티아노 리치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
1716년경, 유화,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영국

입 당 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 1 독 서 1사무 16,1-7,6-7.10-13나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화 답 송

주 - 님 은 나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서 에페 5,8-14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복 음 환 호 송

말 씬 이 - 신 그리 - 스도 님 찬 미 받 으 소 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요한 9,1-41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영 성 체 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오늘의 성가 입당송: 118 봉헌: 215 · 216 성체: 188 · 157 파견: 280

거짓말... 잘하시나요?

김상혁 노르베르토 신부
해안 성 루카 본당 주임



같습니다. : 자기 보호, 사회적 적응, 이익 추구, 타인 배려, 자기 이미지 포장>

자세히 읽어보니 인공지능 따위가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대해 이렇게 잘 요약해 준다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주요 이유가 대부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어 가지 정도는 긍정적이라 위안이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 작년부터 1년 넘게 참으로 많은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 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 할 것은 “아니오” 하고, “아니오” 라고 대답해야 할 때는 “예” 라고 대답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일상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그럴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눈먼 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보탬도 숨김도 없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려 4쪽이나 되는 분량 안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리사들이 교묘한 말재주로 현혹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사실 그대로를 말함으로써 진실의 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AI에게 물어봅니다. “인간은 왜 거짓을 말하는 거야?” AI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고백합니다. 저는 제 인간적 실수나 잘못을 숨기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싶지만, 진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라고 할 것은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사순 시기를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 청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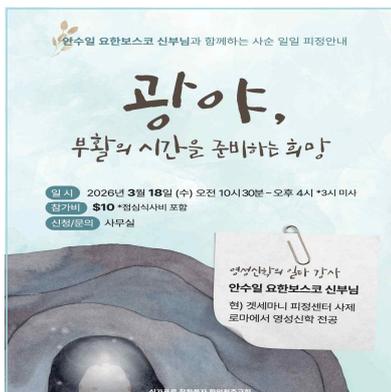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쁜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은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행동입니다. 주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안수일 요한보스코 신부님’ 과 함께아는 사순 일일 피정 일정표

* 일시: 3월 18일 수요일

* 장소: 소성당

시 간	프로그램
10:30~11:40	강의 1
11:4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4:00	강의 2
14:20~15:00	강의 3
15:00~16:00	파견미사



병자성사



어느 토요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본당으로 파견과 있던 신학생과 맥주 한잔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지금 빨리 병자성사 좀 주실 수 있냐는 전화입니다. 장소는 강원대병원. 이미 맥주 두 잔째를 마시고 있던 터라 급히 운전해 줄 봉사자를 구해 춘천으로 향합니다. 춘천 시내에 들어가 강원대학교 후문 쪽으로 가던 중 다시 전화가 걸려 옵니다. 돌아가셨다고….

금요일 저녁 불일이 있어 서울에 가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도 지금 빨리 병자성사를 달라는 전화입니다. 보통 서울에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가는데, 다행히 그날은 사 와야 하는 물건들이 있어 차를 가지고 간 터라 곧바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라 고속도로에 차가 거의 없어 제 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을 내며 달린 덕분에 선종하시기 직전 병원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중교통이었거나 고속도로에 차가 조금만 더 있는 시간대였다면 이번에도 늦었을 겁니다.

목요일 이른 아침, 모처럼 오전 일정이 없어 전날 신부들과 술 한잔하고 늦잠을 자려고 했던 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빨리 병자성사를 달라는 전화입니다. 장소는 건국대학교 병원. 운전할 봉사자를 찾고 출발 준비를 하는 데 다시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셨다고….

병자성사를 청하는 연락의 80% 이상이 늘 이런 식입니다. “언제 드리면 되나요?” “지금 당장이요(그리고 대부분 연락 온 지 한두 시간 내에 돌아

가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춘천이나 서울의 어느 병원이요.” 저는 119 구급대원처럼 24시간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막힌 길을 사이렌 울리며 뚫고 갈 수도 없으며, 헬기를 타고 한 시간 내로 어디든 날아갈 수는 더욱 없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둔 주일, 공지 사항 시간에 전체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병자성사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제발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식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미리 청하셔라. 본인이 직접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두셔라.

병자성사 지침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병세가 얼마나 깊은지 판단해야 할 때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개연성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수술 받기 전에 거룩한 도유를 받을 수 있다. 노쇠하여 기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은 병세가 위중해 보이지 않더라도 거룩한 도유를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자 성체를 받을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어떤 이유로든 죽을 위험에 놓였을 때 영성체하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아직 온전한 의식이 있을 때에 노자 성체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성사의 집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어버이날이나 세계 노인의 날 같은 때 어차피 대부분의 신자분이 노쇠까지는 아니어도 노인이시긴 하니 단체로 병자성사를 받게 해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 소공동체 모임 일정(3월 16일 ~ 3월22일)

날짜	시간	구역/반	주소	이름
3/16(월)	10:00	4구역 1반	Park Natura #05-23	이승주 아녜스
3/19(목)	10:30	4구역 3반	55 Hume Avenue #09-03	권수현 라파엘라
	11:00	3구역 2반	미사 후 교리실	박운성 첼리나